

유럽 연상시키는 홍콩여행의 숨겨진 보석

정갈한 느낌의 리펄스 베이 으뜸 편리한 접근성, 사위장 시설도 훌륭 친환경 비치, 디스커버리베이도 주목



여행 소핑? 말만 들어도 좋다. 해외여행의 30%는 소핑이 차지할 정도로 빼놓을 수 없는 선택 이니까. 그렇다면 홍콩은? 소핑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곳이니 두말하면 입 아프다. 하지만 '홍콩 = 소핑'이라고 단정하면 진정한 홍콩 여행의 즐거움을 반 이상 포기한 것이다.

늦은 휴가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무더위에 지치고, 팍팍한 일상에서 잠시 헤어 나고 싶을 때 홍콩으로 떠나보자. 도심의 높고 화려한 빌딩뿐만 아니라 놀랄만한 풍광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 홍콩 섬 남부 해안선을 따라가면 마치 유럽에 온 듯 에메랄드 빛 바다가 넘실댄다. '누가 바깥 스를 하러 홍콩에 가느냐?'고 할테지만, 안 가본 사람이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이곳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실감할 것이다.

●홍콩서 즐기는 해변의 느긋한 낭만

홍콩에는 크고 작은 50여개의 해변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리펄스 베이 (Repulse bay)를 꼽을 수 있다. 한산한 해변에서 비치타월을 펴고 그 위에 누워 선 탕을 즐기는 상상을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에게는 딱 맞는 곳이다. 돛자리 하나 마 음대로 퍼지 못하는, '물 반, 사람 반'인 그런 해변이 아니다.

리펄스 베이는 지중해의 대표 휴양지 모나코를 연상시켜 '홍콩의 몬테카를로 비치'로 불린다. 산비탈에 즐지어 선 고급 주택들은 이방인에게 쉽게 내주지 않는 듯 너른 바다를 품에 안고 있다. 그 안에 500m 남짓한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오스트리아와 중국에서 들어온 모래로 만든 인공 백사장이지만 한눈에 봐도 관리가 잘된 정갈한 느낌이 인상적이다.

파도가 잔잔하고 수심이 완만해 물놀이 카약이나 스탠드업 패들보드(서서 노 저으며 타는 보드) 등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야외 샤워장이나 탈의실 등 시설도 깨끗하다. 무료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해변 나무 그늘 아래서 늘어지게 휴식을 취했다면 그 뒤로 길게 늘어선 쇼핑몰 (더 펠스)에서 여유를 즐겨보자.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탁 트인 바다를 만발치에서 바라보며 시원한 맥주나 커피, 각테일을 즐기는 이 순간은 누구도 부럽지 않다.

●여행 인생샷 도전 '더 베란다', 영화 '색계' 촬영지로 유명



리펄스 베이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산비탈 아래 기이하게 생긴 고층 빌딩들을 발견할 수 있다. 빌딩 중간이 사각형으로 뿔 뿔러 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산에 사는 용이 승천하기 위해 만든 길이라고 한다. 이곳 명물로 자리잡은 리펄스 베이 맨션(사건)이다. 전에 최고급 호텔이었지만 현재는 리모벨링해 주민들이 살고 있다. 맨션 아래층에는 럭셔리호텔체인 페닌슐라 호텔이 운영하는 '더 베란다'가 있다.

리펄스 베이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산비탈 아래 기이하게 생긴 고층 빌딩들을 발견할 수 있다. 빌딩 중간이 사각형으로 뿔 뿔러 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산에 사는 용이 승천하기 위해 만든 길이라고 한다. 이곳 명물로 자리잡은 리펄스 베이 맨션(사건)이다. 전에 최고급 호텔이었지만 현재는 리모벨링해 주민들이 살고 있다. 맨션 아래층에는 럭셔리호텔체인 페닌슐라 호텔이 운영하는 '더 베란다'가 있다.

페닌슐라가 자랑하는 애프터는 티를 여기 서도 즐길 수 있다. 영화 '색계'의 촬영지 로도 유명하다. 특히 여행자에게는 최고의 포토 스팟으로 알려져 있어 '인생 샷'에 도 전할 만하다.

가는 길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쉽다. 지하철 센트럴역 A출구로 나와 익스체인지 스퀘어(Exchange square)의 버스 터미널에서 스탠리행 버스를 타면 20분 만에 도착한다.

이밖에도 홍콩의 '히든카드'라 불리는 디스커버리 베이(Discovery Bay)도 가볼 만 하다. 란타우 섬에 있는 디스커버리 베이 는 홍콩에 거주하는 서양인들이 대부분 모여 사는 곳이다. 400m 정도의 길이의 타이파 비치(Tai Pak Beach)는 프라이빗 한 느낌이 강하다. 그만큼 조용하고 아늑 하다. 다만 디스커버리 베이는 친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라 거주민의 차량은커녕 택시도 허용되지 않는다. 센트럴 IFC 몰과 육교로 연결된 센트럴 피어에서 페리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 통청(Tung Chun g)역에서 01R번이나, 서니 베이(Sunny Bay)역에서 03R번 버스를 타면 된다.

홍콩 |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남중국해의 푸른 바다와 화창한 햇살, 바다 너머로 라마 섬 등 연안의 섬들이 어우러진 리펄스 베이의 해변 풍경. 홍콩 시민들의 여름 휴양지로 사랑을 받아온 이곳은 관리가 잘된 백사장과 깔끔한 휴양시설, 리펄스 베이 맨션과 붙어있는 예쁜 쇼핑가 등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사진제공 | 홍콩관광청

하이원 리조트, 반려동물 전용 시설 인기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대표 함승희)의 각종 반려동물 편의시설이 휴가철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운틴콘도 B동에서 운영하는 8개의 애견동반 객실은 일반 숙박료에 비해 5만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지만 여름 성수기인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90% 이상의 예약률을 기록했다. 또한 해발 1000m 고원인 마운틴콘도 C동 일대에는 500m 길이의 애견 산책로를 조성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애견 실내용 놀이터도 6월부터 애견 동반 투숙객실과 가까운 마운틴콘도 B동 1층으로 이동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 운영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레드닷 디자인 수상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전망대 서울스카이가(사건)가 더블데코 엘리베이터 스카이셔틀과 지하2층 전시존의 메가컬럼 등 2개 콘

텐츠로 권위있는 디자인상인 '2017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스카이셔틀은 엘리베이터 내부 벽 3면과 천장에 설치한 15개의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에서 재생하는 다양한 영상이 마치 4D 영화를 보는 착각을 주는 것이 매력이다. 실제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할 때 사용한 철골조 뼈대를 전시한 메가컬럼은 구조물을 둘러싼 유리벽면에 3D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롯데월드타워의 건설 과정을 볼 수 있다.

관광공사, 안전한 놀이시설 만들기 앞장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18일부터

12월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유 기시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8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30일 대전, 31일 부산 등 전국 900여개 기타유원 시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12개 권역에서 총 15회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1554개의 유원시설업체(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업 334개소 포함)가 있다. 올해부터 사고가 빈번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확인검사와 기타 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 되었다.

보다 천천히, 보다 특별히 하반기 주목 여행 트렌드

씨트립...다구간항공권, 개인테마여행 등 선정

올 하반기 주목할 여행 트렌드는 무엇일까.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CTRIP)은 요즘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목한 2017년 하반기 흐름으로 다구간 항공권 인기, 개인 테마여행(SIT), 스테이케이션을 꼽았다.

다구간 항공권은 여러 목적지를 거쳐 가는 항공권이다. 얼핏 경우항공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경우지에서 하루 이상 머무는, 스톱오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유럽이나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빠르고, 싸게 가는 것이 항공권 선택의 주요 조건이었다면, 요즘은 보다 천천히, 여러 곳을 돌아보는 여행을 위해 다구간 항공권을 예약한다. 특히 모바일이나 PC로 여정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어 황금연휴처럼 넉넉한 일정의 여행에서 다구간 항공권이 주목받고 있다.

씨트립은 현재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중 유일하게 항공권 검색에 다구간 항공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여정을 최대 4건까지 추가해 총 6개의 여정을 한 번에 검색 및 예약할 수 있다.

남과 다른,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테마여행(SIT:Special Interest Trip)도 요즘 늘고 있다. 식도락이나 쇼핑, 전시 또는 공연 관람 등이 대표적이다. 평소 관심을 갖고 즐기던 활동을 여행지에서 즐기면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여행사에서도 셰프나, 음악평론가 등 전문가와 함께 테마 여행을 하는 패키지를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울로족을 겨냥한 독서, 디지털 디톡스(스마트 기기 멀리하기) 등 색다른 테마여행도 등장하고 있다.

여름휴가의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된 스테이케이션도 해외여행에서도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잡았다. 한 여행사의 조사에 따르면 7일 이상 해외 호텔에 장기 숙박하는 여행객 비중이 처음으로 10%대에 들어섰다. 수도권 거주 미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호텔을 예약한 주요 목적으로 '호텔 안에서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21.3%로 2위를 차지했다.

호텔 업계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런 고객 취향에 맞춰 루프탑 바나 인피니티 풀, 독특한 스파서비스 등 호텔 밖을 나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앞다퉈 갖추고 있고, 스테이케이션에 특화된 숙박상품을 내놓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비비안 공식 서포터즈 9기 활동 스타트 20대 여성 스무명으로 구성...온라인 홍보 활동

비비안 공식 서포터즈 '비비안 9기'(사건)가 최근 서울 양재역 엘리포레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대 여성 스무명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6개월 간 브랜드 제품에 관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 기간 동안 비비안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실무진들과의 만남을 통해 브랜드 홍보 활동도 체험 가능하다. 미션에 따라 제품과 함께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매 미션마다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포상한다. 비비안 측은 "매 기수마다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열정적 참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옥 기자

“내 가방과 지갑이 똑똑해졌다”, 패션테크 급부상

지갑 등 패션잡화에 스마트 기능 접목 O2O 슈트 맞춤 제작 'e-테일러' 주목 건강 체크해주는 스마트 벨트도 등장



패션 패션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패션테크'(Fashion Tech)가 뜨고 있다. 아웃도어 및 스포츠 분야에 국한됐던 기능이 지갑·가방·벨트 등 패션잡화 전반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또한 온·오프라인 연계(O2O) 슈트 맞춤 제작 서비스도 눈에 띈다.

●스타일은 살리고 기능은 첨단으로

특히 세분화되는 소비자의 개성과 취향에 맞춰 스타일은 살리면서도 꼭 필요한 기능만을 담은 미니멀한 패션테크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루이까포즈의 스마트 지갑 '마스코트'는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무선인식 차단 소재로 만들었다. 지갑 안의 카드를 중복인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췄다. 지갑 내 로고가 그려진 포켓에 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넣으면 다른 쪽에 넣어둔 카드와의 중복



'스마트 백 2.0 글림' 가방을 소개하는 코오롱FnC 쿠론 모델 이수정, 루이까포즈 스마트 지갑 '마스코트', LF몰 O2O 슈트 맞춤 제작 서비스 'e-테일러'(왼쪽부터 시계방향). 패션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일명 '패션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코오롱FnC·루이까포즈·LF

인식을 막아준다. 대중교통 이용 시 중복인식 때문에 매번 카드를 지갑서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코오롱FnC 쿠론 '스마트 백 2.0 글림'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스마트폰과 자동으로 연결된다. 가방에 붙은 사각 엠블럼이



불빛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도착을 알려준다. 스마트폰 찾기 '셀피' 기능도 있어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일모와 빈폴 액세서리는 건강을 관리해주는 스마트 벨트 '헬트'를

내놓았다. 배를 내부 센서를 통해 고객의 허리둘레, 걸음 수, 앉은 시간, 과식 여부를 감지해 스마트폰 앱으로 알려준다.

내용었다. 배를 내부 센서를 통해 고객의 허리둘레, 걸음 수, 앉은 시간, 과식 여부를 감지해 스마트폰 앱으로 알려준다.

●온·오프라인 연계 적용 '눈에 띄네'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패션테크' 제품도 있다. LF몰의 O2O 슈트 맞춤 제작 서비스 'e-테일러'가 그것이다.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과 실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프라인 경험의 장점이 결합된 신개념 슈트 맞춤 서비스다. LF몰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전문 교육을 받은 테일러가 방문, 신체 사이즈 측정 및 상담을 한다. 이후 완성된 슈트는 고객에게 직접 전달한다. LF 남성복 브랜드 닥스남성, 마에스트로, 질스튜어트뉴욕 등이 서비스 대상이다. 바쁜 일상 속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나만의 공간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슈트를 만날 수 있다.

김유진 루이까포즈 사업본부장은 "패션업계는 전부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제품에 주목해 왔다"며 "앞으로 패션과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제품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정옥 기자 jjay@donga.com



정유미, 시크한 가을 여자

배우 정유미가 가을 여자의 시크한 매력을 발산했다. 모델로 활약 중인 삼성물산 패션부문 빈폴액세서리 화보를 통해서다. 화보에서 정유미는 올 가을 트렌드인 버건디 색상의 '스윙 새틀백'과 체크 재킷을 매치해 차분한 가을 분위기를 전했다. 또 내추럴한 헤어스타일과 화장은 물론 시크함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정옥 기자·사진제공 | 삼성물산 패션부문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